

11월 마지막 금요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이 날은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날이에요. 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 하지 않는 물건을 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로 지정했어요. 우리의 과소비가 지구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날입니다. 또한 소비와 환경을 생각해 무분별하고 반환경적인 과소비 문화를 줄이기 위해 일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물건을 사지 않는 날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면 왜 환경이 파괴될까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물건은 소비자에게 오기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답니다.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도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또 그 물건이 우리에게 오려면 공장에서 창고로, 그리고 다시 창고에서 가게로, 가게에서 우리 집으로 이동 해야겠지요? 이동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많이 사면 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진 물건들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껴써요

가진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망가뜨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눠써요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장난감을 필요한 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바꿔써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는 중고장터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일 수 있겠죠?

다시써요

조금 망가진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고쳐서 다시 활용해요. 쓰고 난 종이의 뒷장을 이면지로 쓰는 것도 그 예가 됩니다.

